

# 국회 열렸지만... 추경은 안갯속

###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 줄다리기 한국당 예결위원장 선출 유보...황영철·김재원 등 내부정리 안돼

지난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 확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6월 임시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담은 여야 3당간 합의안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기존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사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기존 합의안에 따르면 7월 1~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8~10일에는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어 11일, 17일, 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에 불구하고 오는 19일 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같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려면 큰 틀에서는 기존 합의안 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7월 1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하도록 돼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의를 거쳐 3~5일께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상 의사일정 조율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추경 처리 일정은 미지수다. 한국당은 자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언제 채워 넣을지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예

결위원장도 확정돼야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가 가능하다. 당내에서는 황영철 현 예결위원장과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내부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국회 파행 장기화 속에서 장외 공방전을 벌였던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내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다. 특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취임 후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데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과 민생입법 등 6월 임시국회 과제와 더불어 주요 현안인 경제·외교 부분과 관련된 국정 운영 비전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실정"과 "안보 파탄"을 키워드로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

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 원내대표의 경우 소득주도성과 확대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서 역시 경제집체와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 안보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더불어민주당 몫인 4개 상임위원장도 교체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8표 중 207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이준석 의원은 193표를 얻어 기획재정부위원장에 선출됐다. 또, 전혜숙 의원은 188표를 얻어 행정안전위원장에, 인재근 의원은 190표를 얻어 여성가족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5·18 망언 의원 징계 물 건너 가나

### 국회 윤리특위 종료...평화당 "광주 민심 농락" 반발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면서 국회 윤리특위 연장을 외면함에 따라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윤리특위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한국당이 이를 당사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이 장기화되면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를 연장, 5·18 망언에 대해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광주 민심을 농락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을 정치적으로만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화당 장병완 의원(동남갑)은 30일 "국회 윤리특위 종료는 5·18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며 "당장 7월 1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회에 윤리특위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단체 간 당리당략 때문에 정치 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기한은 연장하고 마땅히 상설로 설치해야 될 윤리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북구갑)은 "국회 윤리특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치적 이해가 들어맞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안이하고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며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에 나서서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장 급한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고, 나머지 특위 연장 문제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위 재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제2연평해전 17주기 지난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7주년 기념행사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해전 영웅들의 부조상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김성찬 의원, 원유철 의원, 민경욱 의원. /연합뉴스

# 황교안, 말 아끼고 일정 줄이고

### 언론 노출 자제

최근 잇단 구설에 오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외 행보를 '구조조정'하고 있다. 황 대표의 외부 공개일정을 줄이는 대신 내부 일정의 비중을 높인다는 게 30일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황 대표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아들 스펙'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지난 28일 '당원 봉사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고 과수농가에서 일손을 돕는 외부 일정을 검토했으나,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 등 내부 일정만을 소화했

다. 주말인 전날에는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후 언론 노출을 삼갔다.

'민생투쟁 대장정' 당시 매일같이 민생현장을 찾고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내에서도 최근 황 대표에 '언론 공개 일정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7일 당 대표 취임 후 4개월간 다양한 일정을 소화, 언론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이고 피로감을 나타냈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DJ평화센터 이사장에 차남 김홍업 전 의원

김대중평화센터는 고(故) 이회호 여사의 별세로 공석 중인 이사장에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을 선임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지난 28일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임 직후 "전임 이사장이었던 아버님과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고 김대

중평화센터 측이 전했다.

앞서 이회호 여사는 초대 이사장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8월 서거하자 이사장직을 이어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공천, 권리당원 확보가 열쇠

### 투표율 20% 유효조건 넘겨...오늘 총선률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률을 1일 확정함에 따라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지역 권리당원 모집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권리당원은 50%의 선택권을 가지게 되며, 국민여론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민주당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

다. 신인 가점도 크게 늘어 현역의원과의 전자 간 권리당원 확보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천률 확정을 위한 권리당원 찬반투표가 지난 29일 투표 유효 조건인 투표율 20%를 넘기며 마감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투표 마감 결과 투표율 20%를 넘겼다"며 "정확한 투표율과 찬

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1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공개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번 투표 결과가 효력을 얻으려면 최종 투표율이 최소한 2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동안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함께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 독려를 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에서 확정된 공천률 특별당규 내용을 이달 초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찬반투표를 했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와 1일 중앙위 현장 투표 결과를 50%씩

합산해 찬성표가 과반이 넘는 경우 공천률을 담은 특별당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공천률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권리당원 모집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권리행사를 위해선 오는 8월 1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 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총선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입당·당비 납부 시기는 8월 1일이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당원 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2 12 point

1 3 0 7 5 8 4 9 2  
96 10 point

2 4 6 3 7 1 2 8 0  
90 8 point

4 6 2 8 1 0 9 7 3  
84 6 point

2 7 0 2 1 4 0 0 2  
78 5 point

0 0 0 0 0 0 0 0 0 0  
72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1\* 3 point

##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트윈스틸)